

# 위대한 개츠비 제 6 장

여리

## 소개글

## 목차

1	위대한 개츠비 6장 -- 56. 개츠비와 댄 코디 (1)	4
2	위대한 개츠비 제 6 장 -- 57. 개츠비와 댄 코디 (2)	9
3	위대한 개츠비 제 6 장 -- 58. 목 축이러 들른 세 손님과 개츠비	13
4	위대한 개츠비 제 6 장 -- 59. 개츠비 파티에 온 톰과 데이지	19
5	위대한 개츠비 제 6 장 -- 60. 오년 전 가을밤 개츠비와 데이지	28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π.π 슬럼프에 ...계획에도 없던 집수리... 다 핑계구요, 다시 바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About this time an ambitious young reporter from New York arrived one morning at Gatsby' 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thing to say.

이 즈음 어느 아침, 야심 찬 젊은 기자가 뉴욕에서 와서 개츠비의 문간에 서서 무어라도 하 실 말씀 없으시냐 물었다.

“Anything to say about what?” inquired Gatsby politely.

“하실 말씀이라니 무엇에 대해서죠?” 개츠비가 정중히 물었다.

“Why -- any statement to give out.”

“그 왜--뭐든 내놓으실 말씀이랄까.”

<p>It transpired after a confused five minutes that the man had heard Gatsby' s name around his office in a connection which he either wouldn' t reveal or didn' t fully understand. This was his day off and with laudable initiative he had hurried out “to see.”</p>	<p>혼란스러운 5분이 흐른 후 밝혀진 바, 그 남자는 사무실 언저리에서 개츠비의 이 름을 뭔가와 관련하여 들었는데, 그 뭔가 에 대해서는 드러낼 의사가 없거나 완전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 다. 그날은 자신의 휴무일이었는데, 기특 한 자발성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보 러” 온 것이었다.</p>
<p>It was a random shot, and yet the reporter' s instinct was right. Gatsby' s notoriety, spread about by the hundreds who had accepted his hospitality and so become authorities</p>	<p>한 번 찰러보는 것이었지만, 기자의 육감 은 옳았다. 개츠비에 대한 악평-- 다름 아닌 그의 환대를 받고 그 까닭에 그의 과거에 대한 권위자가 되어 버린 수백 명 의 사람들이 퍼뜨린 험한 소문--이 그</p>

on his past, had increased all summer until he fell just short of being news. Contemporary legends such as the “underground pipe-line to Canada.” attached themselves to him, and there was one persistent story that he didn’ t live in a house at all, but in a boat that looked like a house and was moved secretly up and down the Long Island shore. Just why these inventions were a source of satisfaction to James Gatz of North Dakota, isn’ t easy to say.

James Gatz-- that was really, or at least legally, his name. He had changed it at the age of seventeen and at the specific moment that witnessed the beginning of his career -- when he saw Dan Cody’ s yacht drop anchor over the most insidious flat on Lake Superior. It was James Gatz who had been loafing along the beach that afternoon in a torn green jersey and a pair of canvas pants, but it was already Jay Gatsby who borrowed a rowboat, pulled out to the TUOLOMEE, and informed Cody that a wind might catch him and break him

여름을 지나며 증폭되어 급기야 거의 언론의 뉴스거리가 되어 버렸다. “캐나다로의 지하 파이프라인” 등의 현시대의 전설 같은 소문이 그에게 따라붙었고, 개중 질긴 소문 하나는 개츠비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배에 사는데, 집처럼 생긴 그 배는 비밀스럽게 롱아일랜드 해안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꾸며진 이야기들이 왜 노스다코타 출신의 제임스 개츠에게 만족의 원천이 되었는지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

제임스 개츠-- 이것이 그의 진짜 이름, 아니 적어도 법률상의 이름이다. 그가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은 17세 되던 해 그의 경력의 출발점을 목격한 순간--즉, 슈퍼어리어 호안선(湖岸線)에서 가장 시나브로 아찔해지는 저지대에 댄 코디가 요트의 닻을 내리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무지 바지에 찢어진 초록 저지 셔츠를 걸치고 그 오후 호안선을 따라 빈둥대던 사람은 제임스 개츠였지만, 배를 빌려 투올로미 호로 노 저어 가서 코디에게 반 시간 내로 바람이 들이쳐 난파할 수도 있다고 알려준 사람은 제이 개츠비였다.

up in half an hour.

I suppose he' d had the name ready for a long time, even then. His parents were shiftless and unsuccessful farm people -- his imagination had never really accepted them as his parents at all. The truth was that Jay Gatsby of West Egg, Long Island, sprang from his Platonic conception of himself. He was a son of God -- a phrase which, if it means anything, means just that -- and he must be about His Father' s business, the service of a vast, vulgar, and meretricious beauty. So he invented just the sort of Jay Gatsby that a seventeen-year-old boy would be likely to invent, and to this conception he was faithful to the end.

For over a year he had been beating his way along the south shore of Lake Superior as a clam-digger and a salmon-fisher or in any other capacity that brought him food and bed. His brown, hardening body lived naturally through the half-fierce, half-lazy work of the bracing days. He knew women early, and since they spoiled him he

내 추측에 그 이름을 지어둔 건, 그 당시 에조차,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의 부모는 야망도 능력도 없는 시원찮은 농부들이었고--그들은 그의 상상 속에서 단 한번도 부모로 인정되지 못했다. 진실은, 롱아일랜드 웨스트 에그의 제이 개츠비가 자신의 플라토닉한 생각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고-- '신의 아들' 이라는 구절이 어떤 의미라도 갖는다면 바로 이런 의미일 터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일, 즉 방대하고, 저속하고,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열일곱 살 소년이 지어낼 법한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을 꾸며내고, 이 개념에 끝까지 충실했다.

일 년이 넘도록 개츠비는 슈퍼리어 호 남쪽 호안선을 따라 오가며 조개를 캐고 연어를 잡거나 하며 능력이 닿는 대로 숙식을 해결했다. 그의 탄탄한 구릿빛 몸은 때론 치열하고, 때론 늘어지는 일을 하며 그 활력 넘치는 날들을 되는데로 살았다. 그는 일찌감치 여자를 알았고, 여자들이 그를 버려놓은 까닭에 그는 여자들을 경멸하게 되었는데, 젊은 처녀들은 무

became contemptuous of them, of young virgins because they were ignorant, of the others because they were hysterical about things which in his overwhelming self-absorption he took for granted.

지하다는 이유로, 그 외 여자들은, 그가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져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신경질적이라는 이유로 그랬다.

\*bracing: Producing or stimulating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vigor: energizing, exhilarant, exhilarating, innervating, intoxicating, invigorating, refreshing, reinvigorating, renewing, restorative, roborant, stimulating, tonic. See help/harm/harmless. (source: answers.com)

But his heart was in a constant, turbulent riot. The most grotesque and fantastic conceits haunted him in his bed at night. A universe of ineffable gaudiness spun itself out in his brain while the clock ticked on the washstand and the moon soaked with wet light his tangled clothes upon the floor. Each night he added to the pattern of his fancies until drowsiness closed down upon some vivid scene with an oblivious embrace. For a while these reveries provided an outlet for his imagination; they were a satisfactory hint of the unreality of reality, a promise that the rock of the world was founded securely on a fairy's wing.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끊임없는 격랑의 소요를 겪고 있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할 나위 없이 터무니 없고 비현실적인 망상들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형언할 수 없는 야단스런 화려함의 우주가 그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동안 시계는 세면대 위에서 째깍거리고 헝클어진 옷들은 바닥에서 촉촉한 달빛에 젖어 들었다. 밤마다 그의 환상의 세계에 새로운 무늬가 더해졌고 그러다 보면 졸음이 몰려와 망각의 품으로 생생한 장면을 감싸 안았다. 한동안 이 몽상들은 그의 상상력에 출구가 되어주었고, 현실의 비현실성에 대한 만족스런 암시였으며, 세상이라는 반석의 기초가 요정의 날개 위에 안전하게 놓여있다는 약속이었다.

An instinct toward his future glory had

앞날의 영광을 향한 본능이 그를 몇 달

led him, some months before, to the small Lutheran college of St. Olaf in southern Minnesota. He stayed there two weeks, dismayed at its ferocious indifference to the drums of his destiny, to destiny itself, and despising the janitor' s work with which he was to pay his way through. Then he drifted back to Lake Superior, and he was still searching for something to do on the day that Dan Cody' s yacht dropped anchor in the shallows alongshore.

전 남부 미네소타의 작은 루터교 대학인 세인트 올라프로 이끌었다. 두 주가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운명의 북소리에 대한, 운명 그 자체에 대한 대학의 맹렬한 무관심에 낙담하고, 어떻게든 길을 헤쳐나가고자 말았던 수위 일에 환멸을 느꼈다. 그는 다시 슈피리어 호로 흘러 들었고, 댄 코디의 요트가 호안선 저지대에 닿을 내린 그날도 여전히 일 거리를 찾아 헤매던 참이었다.

Cody was fifty years old then, a product of the Nevada silver fields, of the Yukon, of every rush for metal since seventy-five. The transactions in Montana copper that made him many times a millionaire found him physically robust but on the verge of soft-mindedness, and, suspecting this, an infinite number of women tried to separate him from his money. The none too savory ramifications by which Ella Kaye, the newspaper woman, played Madame de Maintenon to his weakness and sent him to sea in a yacht, were common knowledge to the turgid sub-journalism of 1902. He had been coasting along all too hospitable shores for five years when he turned up as James Gatz' s destiny at Little Girls Point.

코디는 당시 쉰 살이었고, 네바다 주 은광과 유콘 강과 1875년 이래 모든 금속 광물 광풍(狂風)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몬태나 주 구리 거래로 백만장자 뺨 여러 번 칠 정도의 부자가 된 그는 육체는 강건하였으나 마음은 흐물거렸고\*, 그 낚새를 찬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그를 벗겨먹으려 달려들었다. 썩 점잖지 못한 그 파생 결과들--이를 이용해 신문 쪽 사람인 엘라 케이가, 마치 맨트농 부인\*\*마냥, 약점을 잡고는 코디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보내버렸다--은 침소봉대하는 1902년 이류 언론계에서는 상식이었다. 코디는 그 후 다섯 해를 법석을 떨며 환대하는 해안들을 돌다가 리틀 걸즈 만에서 제임스 개츠의 운명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

\* “정신은 무너져 내리기 일보직전이었고” 로 했다가 “마음은 흐무러지기 일보직전이었고” 로 고쳤다가 다시 너무 말이 늘어져서 고쳤습니다.^

\*\* 꺾 찾아보세요.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

To the young Gatz, resting on his oars 노에 몸을 기대고 난간이 쳐진 갑판을 올

and looking up at the railed deck, the yacht represented all the beauty and glamour in the world. I suppose he smiled at Cody -- he had probably -- discovered that people liked him when he smiled. At any rate Cody asked him a few questions (one of them elicited the brand new name) and found that he was quick and extravagantly ambitious. A few days later he took him to Duluth and bought him a blue coat, six pair of white duck trousers, and a yachting cap. And when the TUOLOMEE left for the West Indies and the Barbary Coast Gatsby left too.

려다본 젊은 개츠에게 코디의 요트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호화로움을 대변하였다. 추측컨대, 개츠는 코디에게 씨익 웃었겠지 -- 개츠는 자기가 웃을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아마도 알고 있었으리라. 어쨌든, 코디는 개츠에게 몇 가지 질문(그 중 하나에 대한 답변으로 그의 새로운 이름이 나왔다)을 던진 뒤 개츠비가 민첩하고 기막히게 야심만만함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코디는 개츠비를 데리고 델루스라는 항구도시로 가서 푸른 외투 한 벌, 하얀 코튼 덕 바지 여섯 벌, 요트 모자 하나를 사주었다. 그리고 투올로미 호가 서인도 제도와 바르바리 해안\*을 향해 출항할 때, 개츠비도 함께 떠났다.

--

\* 해적질, 노예 거래, 식민주의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라는 점에 Jeffrey Louis Decker은 주목한다. (인터넷에서 “Gatsby ‘s Pristine Dream: The Diminishment of the Self-Made Man in the Tribal Twenties by Jeffrey Louis Decker” 을 서치하시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He was employed in a vague personal capacity -- while he remained with Cody he was in turn steward, mate, skipper, secretary, and even jailor, for Dan Cody sober knew what lavish doings Dan Cody drunk might soon be about, and he provided for such contingencies by reposing more and

개츠비는 모호한 사적 용무를 보았다 -- 코디와 함께 할 때 그는 승무원이 되었다가, 친구가 되었다가, 선장이 되었다가, 비서가 되었다가, 심지어는 간수까지 있었는데, 맑은 정신의 댄 코디는 고주망태 댄 코디가 어떤 흥청망청 짓거리를 하려 들지 알았고,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개츠비에게 점점 더 많은 걸 믿

more trust in Gatsby. The arrangement lasted five years, during which the boat went three times around the Continent. It might have lasted indefinitely except for the fact that Ella Kaye came on board one night in Boston and a week later Dan Cody inhospitably died.

고 맡겼다. 이런 식으로 다섯 해가 흘렀고, 그 동안 배는 대륙을 세 번 돌았다. 이런 식으로 영원히 시간이 흐를 뻔했지만, 엘라 케이가 어느 밤 보스톤에서 배에 오르고 한 주 후 댄 코디가 박절하게 죽어갔다.

I remember the portrait of him up in Gatsby's bedroom, a gray, florid man with a hard, empty face -- the pioneer debauchee, who during one phase of American life brought back to the Eastern seaboard the savage violence of the frontier brothel and saloon. It was indirectly due to Cody that Gatsby drank so little. Sometimes in the course of gay parties women used to rub champagne into his hair; for himself he formed the habit of letting liquor alone.

개츠비의 침실에 걸린 인물 사진이 기억난다. 굳고 공허한 표정을 한 흰 머리의 혈색 붉은 남자 □ 개척적 난봉꾼\*, 미국 역사의 한 단계에서 동부 해안 지방에 매 음굴과 술집의 야만적 폭력을 되돌려놓은 자. 개츠비가 술에 입을 거의 대지 않는 것도 간접적이거나 코디 덕분이었다. 흥겨운 파티 중에 여자들이 샴페인을 그의 머리에 비벼대기도 했지만, 그로 말하자면 술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았다.

--

\* pioneer debauchee” 를 번역하는 데 골머리를 앓았고, 사실 지금의 번역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선구적 난봉꾼” (송무 교수님, “난봉꾼 개척자” (김동욱 교수님), “개척자이자 탕아” (방대수님) 등이 있는데 모두 뉘앙스가 다릅니다. 기회가 되면 “Boats Against the Current” : Morality and the Myth of Renewal in THE GREAT GATSBY by Jeffrey Steinbrink를 한 번 읽어보려구요. 혹시 거기서 감을 잡을 수 있을까 하구요.

And it was from Cody that he inherited money -- a legacy of twenty-five thousand dollars. He didn't get it. He

그리고 돈을 상속받은 건 코디로부터였다 -- 이만오천 달러의 유산. 개츠비는 그걸 받진 못했다. 개츠비에게 불리하게 작용

never understood the legal device that was used against him, but what remained of the millions went intact to Ella Kaye. He was left with his singularly appropriate education; the vague contour of Jay Gatsby had filled out to the substantiality of a man.

한 법적 장치는 도무지 이해 불가했고, 그 수백만 달러에서 남은 돈은 고스란히 엘라 케이의 손에 떨어졌다.

개츠비에게 남겨진 유산은 특이하리만치 적절했던 교육이었고, 이에 더하여 제이 개츠비의 어렵풋했던 윤곽에 살이 채워지며 한 남자의 짝 찬 모습이 잡혀있었다.

He told me all this very much later, but I've put it down here with the idea of exploding those first wild rumors about his antecedents, which weren't even faintly true. Moreover he told it to me at a time of confusion, when I had reached the point of believing everything and nothing about him. So I take advantage of this short halt, while Gatsby, so to speak, caught his breath, to clear this set of misconceptions away.

개츠비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나중에 얘기해 주었지만, 내가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은 그의 과거사에 대해 처음에 나돌았던 허무맹랑한 소문들, 터럭만큼도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날려버릴 생각에서이다. 더욱이 개츠비가 이 이야기를 해준 건 혼란의 시간이었고, 그때 나는 그에 대해 무엇이든 믿으면서 아무것도 못 믿는 지점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짧은 휴지기-- 말하자면 개츠비가 숨을 돌리고 있던 때--를 이용하여 그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He told me all this very much later, but I've put it down here with the idea of exploding those first wild rumors about his antecedents, which weren't even faintly true. Moreover he told it to me at a time of confusion, when I had reached the point of believing everything and nothing about him. So I take advantage of this short halt, while Gatsby, so to speak, caught his breath, to clear this set of misconceptions away.

개츠비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나중에 얘기해 주었지만, 내가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은 그의 과거사에 대해 처음에 나돌았던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터럭만큼도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날려버릴 생각에서다. 더욱이 개츠비가 이 이야기를 해준 건 혼란의 때였고, 그때 나는 그에 대해 뭐든지 믿으면서 아무것도 못 믿는 지점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짧은 휴지기--말하자면 개츠비가 한숨 돌리고 있던 때--를 이용하여 그 오해들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It was a halt, too, in my association with his affairs. For several weeks I didn't see him or hear his voice on the phone -- mostly I was in New York, trotting around with Jordan and trying to ingratiate myself with her senile

그것은 나에게도 휴지기였다, 개츠비의 일로부터. 몇 주 동안 나는 그를 보지 않았고 전화로 그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지만--대체로 뉴욕에 있으면서, 조던과 종종거리며 쏘다니고 연로한 조던 이모의 비위를 맞추며 지냈다--마침내 나

<p>aunt -- but finally I went over to his house one Sunday afternoon. I hadn' t been there two minutes when somebody brought Tom Buchanan in for a drink. I was startled, naturally, but the really surprising thing was that it hadn' t happened before.</p>	<p>는 어느 일요일 오후 그의 집으로 건너갔다. 가서 2 분이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톰 뷰캐넌을 데리고 한 잔 하러 들렀다. 내가 그 일에 놀란 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사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제껏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p>
<p>They were a party of three on horseback -- Tom and a man named Sloane and a pretty woman in a brown riding-habit, who had been there previously.</p>	<p>나타난 건 말 등에 올라탄 세 사람의 무리였다-- 톰과 슬로언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갈색 승마복을 입은 예쁜 여자 한 사람, 그 여자는 이 전에도 온 적이 있었다.</p>
<p>"I' m delighted to see you," said Gatsby, standing on his porch. "I' m delighted that you dropped in."</p>	<p>"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개츠비가 포치에 서서 말했다, "들려 주셔서 기쁩니다."</p>
<p>As though they cared!</p>	<p>마치 그 정중한 인사에 그들이 마음을 쓰기라도 할 듯.</p>
<p>"Sit right down. Have a cigarette or a cigar." He walked around the room quickly, ringing bells. "I' ll have something to drink for you in just a minute."</p>	<p>"앉으세요. 쥘련이나 여송연 한 대 태우시죠." 개츠비가 재빠르게 방을 돌며 벨들을 울려댔다. "금방 마실 것을 내오겠습니다."</p>
<p>He was profoundly affected by the fact that Tom was there. But he would be uneasy anyhow until he had given them something, realizing in a vague way that that was all they came for. Mr. Sloane wanted nothing. A lemonade? No, thanks. A little champagne? Nothing at all, thanks. . . . I' m sorry -- --</p>	<p>톰이 거기 있다는 사실에 개츠비의 마음 깊은 곳이 술렁였다. 그런데 원가를 내올 때까지는 개츠비의 속은 어찌되었든 편치 않을 터였는데, 오직 목을 축이려 들렀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슬로언 씨는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 레모네이드?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샴페인 좀? 아뇨, 고맙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 --</p>
<p>"Did you have a nice ride?"</p>	<p>"승마는 즐거우셨습니까?"</p>
<p>"Very good roads around here."</p>	<p>"이 근방 길이 매우 좋던데요."</p>
<p>"I suppose the automobiles -- --"</p>	<p>"내 생각에 자동차들이 -- --"</p>
<p>"Yeah."</p>	<p>"예."</p>

Moved by an irresistible impulse, Gatsby turned to Tom, who had accepted the introduction as a stranger.	충동을 못 이기고 개츠비가 톰을 돌아보았는데, 그에게 초면으로 소개가 된 참이었다.
“I believe we’ ve met somewhere before, Mr. Buchanan.”	“우리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뷰캐넌 씨.”
“Oh, yes,” said Tom, gruffly polite, but obviously not remembering. “So we did. I remember very well.”	“아, 예,” 데면데면한 정중함으로 톰이 말했지만, 기억을 못함이 분명했다. “그랬죠. 기억이 나고 말구요.”
“About two weeks ago.”	“한 두 주 전예요.”
“That’ s right. You were with Nick here.”	“맞아요. 여기 닉과 함께 계셨죠.”
“I know your wife,” continued Gatsby, almost aggressively.	“부인 되시는 분을 압니다,” 개츠비가 거의 공격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That so?”	“그래요?”
Tom turned to me.	톰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You live near here, Nick?”	“이 근처 살지, 닉?”
“Next door.”	“바로 옆집.”
“That so?”	“그래?”
Mr. Sloane didn’ t enter into the conversation, but lounged back haughtily in his chair; the woman said nothing either -- until unexpectedly, after two highballs, she became cordial.	슬로언씨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의자에서 거만스럽게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여자 역시 아무 말 았다가--하이볼을 두 잔 걸친 뒤 느닷없이 나긋나긋해졌다.
“We’ ll all come over to your next party, Mr. Gatsby,” she suggested. “What do you say?”	“다음 파티에 올게요, 개츠비 씨,” 여자가 제안했다, “어때요?”

<p>“Certainly; I’ d be delighted to have you.”</p>	<p>“그러셔야죠; 오시면 큰 기쁨이죠.”</p>
<p>“Be ver’ nice,” said Mr. Sloane, without gratitude. “Well -- think ought to be starting home.”</p>	<p>“그러심 정말 좋겠네요,” 마음에도 없는 고마움으로 슬로언씨가 말했다. “어--생각에, 집으로 가야 할 때가.”</p>
<p>“Please don’ t hurry,” Gatsby urged them. He had control of himself now, and he wanted to see more of Tom. “Why don’ t you -- why don’ t you stay for supper? I wouldn’ t be surprised if some other people dropped in from New York.”</p>	<p>“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츠비가 간곡히 만류했다. 이제는 평정을 되찾았고, 틈을 좀 더 오래 보고 싶었다. “혹시 그러니까--혹시 계시다가 저녁이라도? 뉴욕에서 다른 분들이 들린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랍니다.”</p>
<p>“You come to supper with ME,” said the lady enthusiastically. “Both of you.”</p>	<p>“저와 저녁 하러 건너오세요,” 슬로언 부인이 열심으로 말했다. “두 분 다요.”</p>
<p>This included me. Mr. Sloane got to his feet.</p>	<p>그 두 분에 내가 끼어있었다. 슬로언씨는 일어섰다.</p>
<p>“Come along,” he said -- but to her only.</p>	<p>“갑시다,” 그가 말했다--그런데 자기 부인에게만 한 말이었다.</p>
<p>“I mean it,” she insisted. “I’ d love to have you. Lots of room.”</p>	<p>“진심이에요,” 부인이 주장했다. “꼭 모시고 싶습니다. 자리도 넉넉해요.”</p>
<p>Gatsby looked at me questioningly. He wanted to go, and he didn’ t see that Mr. Sloane had determined he shouldn’ t.</p>	<p>개츠비가 가웃이 나를 보았다. 그는 가고 싶었고, 그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슬로언씨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p>
<p>“I’ m afraid I won’ t be able to,” I said.</p>	<p>“죄송하지만 전 안 되겠네요,” 내가 말했다.</p>
<p>“Well, you come,” she urged, concentrating on Gatsby.</p>	<p>“그래도 선생님은 오세요,” 부인이 개츠비에게 집중적으로 간청했다.</p>
<p>Mr. Sloane murmured something close to her ear.</p>	<p>슬로언씨는 부인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뭐라뭐라 중얼거렸다.</p>

<p>“We won’ t be late if we start now,” she insisted aloud.</p>	<p>“지금 가면 늦지 않을 거예요,” 부인이 큰 소리로 고집을 부렸다.</p>
<p>“I haven’ t got a horse,” said Gatsby. “I used to ride in the army, but I’ ve never bought a horse. I’ ll have to follow you in my car. Excuse me for just a minute.”</p>	<p>“전 말(馬)이 없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군에서는 탔지만, 말을 산 적이 없어요. 차로 따라가야 할 거예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p>
<p>The rest of us walked out on the porch, where Sloane and the lady began an impassioned conversation aside.</p>	<p>남은 우리 넷은 포치로 걸어 나갔고, 거기서 슬로언과 부인은 둘 만의 대화를 열띤 나눴다.</p>
<p>“My God, I believe the man’ s coming,” said Tom. “Doesn’ t he know she doesn’ t want him?”</p>	<p>“세상에, 저 남자 오려나 보네,” 톰이 말했다. “부인이 원치 않는 걸 모르나부지?”</p>
<p>“She says she does want him.”</p>	<p>“말로는 원한다고 했잖아.”</p>
<p>“She has a big dinner party and he won’ t know a soul there.” He frowned. “I wonder where in the devil he met Daisy. By God, I may be old-fashioned in my ideas, but women run around too much these days to suit me. They meet all kinds of crazy fish.”</p>	<p>“오늘 성대한 파티가 있을 테고 거기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을 텐데.” 톰이 인상을 찌푸렸다. “도대체 어디서 데이지를 만났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런 면에 고리타분한 건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요즘 너무 나다니는 게 눈꼴 썬*. 온갖 미친 종자들을 다 만나고 다닌다니까.” **</p>
<p>Suddenly Mr. Sloane and the lady walked down the steps and mounted their horses.</p>	<p>갑자기 슬로언씨와 부인이 층계를 걸어내려 말에 올라탔다.</p>
<p>“Come on,” said Mr. Sloane to Tom, “we’ re late. We’ ve got to go.” And then to me: “Tell him we couldn’ t wait, will you?”</p>	<p>“자,” 슬로언씨가 톰에게 말했다, “늦겠어요. 가야 해요.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기다릴 수 없었다고 전해줘요, 그래 주시겠죠?”</p>
<p>Tom and I shook hands, the rest of us exchanged a cool nod, and they trotted quickly down the drive, disappearing under the August foliage just as Gatsby, with hat</p>	<p>나는 톰과는 악수를 나누고 다른 두 사람과는 선선한 목례를 주고 받았으며, 그들은 정원 길을 재빠르게 달려 나갔는데, 세 사람이 팔월의 울창함 아래로 막 사라져갔을 때 개츠비가, 모</p>

and light overcoat in hand, came out the front door.

자와 가벼운 외투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 꿀볼견이야"로 했다가... 그게 그거죠. 자기 입맛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직역을 해도 한국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온갖 잡종 미친 물고기들을 다 만나고 다닌다니까"

Tom was evidently perturbed at Daisy's running around alone, for on the following Saturday night he came with her to Gatsby's party. Perhaps his presence gave the evening its peculiar quality of oppressiveness -- it stands out in my memory from Gatsby's other parties that summer. There were the same people, or at least the same sort of people, the same profusion of champagne, the same many-colored, many-keyed commotion, but I felt an unpleasantness in the air, a pervading harshness that hadn't been there before. Or perhaps I had merely grown used to it, grown to accept West Egg as a world complete in itself, with its own standards and its own great figures, second to nothing because it had no consciousness of being so, and now I was looking at it again, through Daisy's eyes. It is invariably saddening to look through new eyes at things upon which you have expended your own powers of adjustment.

Tom was evidently perturbed at Daisy's running around alone, for on the following Saturday night he came with her to Gatsby's party. Perhaps his presence gave the evening its peculiar quality of oppressiveness -- it stands out in my memory from Gatsby's other parties that summer. There were the same people, or at least the same sort of people, the same profusion of champagne, the same many-colored, many-keyed commotion, but I felt an unpleasantness in the air, a pervading harshness that hadn't been there before. Or perhaps I had merely grown used to it, grown to accept West Egg as a world

톰은 데이지가 혼자 **쏘다니는 게 마음에 단단히 걸렸음**\* 분명한데, 다음 토요일 밤 데이지와 함께 개츠비의 파티에 왔기 때문이다. 어찌면 톰의 존재로 그날 저녁 분위기가 묘하게 짓눌렸나 보다 -- 그 여름 개츠비의 파티 중에서도 유달리 내 기억 속에서 도드라지는 걸 보니. 사람들도 같았고, 아니 적어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혼전만전 샴페인 부어대는 것도 같았고, **온갖 색깔 온갖 꼬락서니**\*로 야단법석 부리는 것도 같았지만, 불쾌감이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꺼칠꺼칠한 냉혹함이 곳곳에 배어있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어찌면 단지 내가 그곳에 길들여졌었던 탓일지도, 웨스트 에그를 그 자체로서 그것만의 기준과 그것만의 위대한 인물들을 갖춘 하

complete in itself, with its own standards and its own great figures, second to nothing because it had no consciousness of being so, and now I was looking at it again, through Daisy's eyes. It is invariably saddening to look through new eyes at things upon which you have expended your own powers of adjustment.

나의 완전한, 견줄 데 없는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던 탓일지도,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함을 의식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다시 보고 있으므로, 데이지의 눈으로.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 힘을 쏟아 붓던 사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은 언제라도 슬픈 일이다.\*

\* perturbed라는 단어 수준에서만 보면 데이지가 혼자 쓰다니는 것에 “마음이 어지러웠음” 나 “심란했음”이 가 더 적절한 번역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의 번역을 일부 베꼈습니다. 즉 송무 교수님의 “온갖 색깔 온갖 스타일의” 를 응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다 보니 같거나 비슷해질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직접 얻었습니다.)

\*제 번역의 많은 부분 그렇듯, 아이디어의 배열을 원문과 되도록 같게 가져가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디어의 배열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늘 번역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늘 바람직하지도 않을 테고...아 바람직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테고...(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 태세입니다), 완벽한 실현은 더더욱...)

They arrived at twilight, and, as we strolled out among the sparkling hundreds, Daisy's voice was playing murmurous tricks in her throat.

둘은 해질 무렵 도착했고, 그리고, 우리가 반짝이는 수백의 사람을 헤치고 빈들빈들 걸어나갈 때에, 데이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목청에서 사각사각 기교를 부리고 있었다.

“These things excite me so,” she whispered.

“모든 게 날 들뜨게 해요,” 데이지가 속삭여왔다.

“If you want to kiss me any time during the evening, Nick, just let me know and I'll be glad to arrange it for you. Just mention my name. Or present a green card. I'm giving out green ---”

“오늘 저녁 언제라도 내게 입맞추고 싶으면, 오빠, 말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응할 게요.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요. 아님 초록 카드를 내밀거나. 내가 지금 초록 카드들을 나눠주 ---”

“Look around,” suggested Gatsby.

“좀 둘러보시지요,” 개츠비가 제안했다.

“I'm looking around. I'm having a

“둘러보고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래서 둘러보

marvelous -- --”	-- --.”
“You must see the faces of many people you’ ve heard about.”	“말로만 들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Tom’ s arrogant eyes roamed the crowd.	톰의 거만한 두 눈이 군중을 휘둘러보았다.
“We don’ t go around very much,” he said. “In fact, I was just thinking I don’ t know a soul here.”	“우린 별로 나다니지 않아요,” 톰이 말했다. “사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싶은데.”
“Perhaps you know that lady.” Gatsby indicated a gorgeous, scarcely human orchid of a woman who sat in state under a white plum tree. Tom and Daisy stared, with that peculiarly unreal feeling that accompanies the recognition of a hitherto ghostly celebrity of the movies.	“어쩌면 저 여자분은 아실 겁니다.” 개츠비가 인간이라기보다는 난초에 가까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켰고, 그 여자는 하얀 꽃 만발한 자두 나무 아래에 곱게 모셔져 있었다. 톰과 데이지가 뚫어지게 보았다, 지금껏 실체 감 없던 은막의 유명인사를 인지할 때 오는 그 기묘한 비현실감에 싸여서.
“She’ s lovely,” said Daisy.	“예쁘다,” 데이지가 말했다.
“The man bending over her is her director.”	“그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He took them ceremoniously from group to group:	개츠비는 격식상 둘을 이 무리 저 무리로 안내했다.
“Mrs. Buchanan . . . and Mr. Buchanan -- --” After an instant’ s hesitation he added: “the polo player.”	“뷰캐넌 부인… 그리고 뷰캐넌 씨 -- --.” 순간의 머뭇거림 후 개츠비가 덧붙였다: “왜, 그 폴로 선수 있잖아요.”
“Oh no,” objected Tom quickly, “not me.”	“아, 아녜요,” 톰이 급하게 막아 섰다, “제가 아니에요.”
But evidently the sound of it pleased Gatsby, for Tom remained “the polo player.” for the rest of the evening.	그러나 그 소리에 개츠비가 흡족했음이 분명한데, 톰이 그날 저녁 내내 “그 폴로 선수” 로 통했기 때문이다.

<p>“I’ve never met so many celebrities!” Daisy exclaimed. “I liked that man -- what was his name?-- with the sort of blue nose.”</p>	<p>“이렇게 많은 유명인사를 본 적이 없어요!” 데이지가 외쳤다. “나 저 남자 좋아 -- 이름이 뭐더라 -- 뭐랄까 코에 청렴한 기운이 도는*”</p>
--	--

\* 참고로... a bluenose:

1. A puritanical person: "Bluenoses demand restraint against the porn and violence that are the staple of popular culture" (Charles Krauthammer).

2. often Bluenose Canadian. A native or inhabitant of Nova Scotia. (source: <http://www.answers.com>)

여기서는 그냥 “푸른 기운이 도는” 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p>Gatsby identified him, adding that he was a small producer.</p>	<p>개츠비는 그가 누군지 알려주고는 그저 그런 제작자라고 덧붙였다.</p>
--	--

<p>“Well, I liked him anyhow.”</p>	<p>“음, 어쨌든 저 사람 맘에 들어요.”</p>
------------------------------------	------------------------------

<p>“I’d a little rather not be the polo player,” said Tom pleasantly, “I’d rather look at all these famous people in -- in oblivion.”</p>	<p>“난 폴로 선수가 아닌 편이 좀 좋겠어요,” 톰이 유쾌하게 말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을 나는 -- 나는 망각 속에 잊혀진 채 --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편이 좋겠는데.”</p>
---	--

<p>Daisy and Gatsby danced. I remember being surprised by his graceful, conservative fox-trot □ I had never seen him dance before. Then they sauntered over to my house and sat on the steps for half an hour, while at her request I remained watchfully in the garden. “In case there’s a fire or a flood,” she explained, “or any act of God.”</p>	<p>데이지와 개츠비는 춤을 추었다. 그의 우아하게 삼가는 태도의 폭스-트롯에 놀랐던 게 기억이 난다 -- 그 전에는 개츠비가 춤추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둘은 그러고는 내 집으로 한가로이 걸어가서 반 시간 동안 층계에 앉아 있었고, 그 동안 나는 데이지의 청에 따라 정원에 남아 망을 보았다.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데이지가 설명했다, “기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p>
---	--

<p>Tom appeared from his oblivion as we were sitting down to supper together. “Do you mind if I eat with some people over here?” he said. “A fellow’s getting off some funny stuff.”</p>	<p>톰이 망각 속으로부터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함께 저녁을 하러 자리에 앉고 있었다. “여기서 몇몇 분과 식사를 해도 괜찮겠어요?” 톰이 말했다. “한 친구가 막 재밌는 걸 시작하고 있어서.”</p>
--	---

<p>“Go ahead,” answered Daisy genially, “and if you want to take down any addresses here’ s my little gold pencil.” . . . she looked around after a moment and told me the girl was “common but pretty,” and I knew that except for the half-hour she’ d been alone with Gatsby she wasn’ t having a good time.</p>	<p>“그렇게 해요,” 데이지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거 적으려 한다면 여기 내 작은 금제 연필이 있어요.” ... 데이지가 잠시 후 둘러보더니 내게 그 여자가 “귀티는 없지만 예쁘다” 고 말했는데, 개츠비와 함께 했던 반 시간을 제외하고는 데이지가 즐겁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았다.</p>
<p>We were at a particularly tipsy table. That was my fault -- Gatsby had been called to the phone, and I’ d enjoyed these same people only two weeks before. But what had amused me then turned septic on the air now.</p>	<p>우리는 유난히 열근히 취기 도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건 내 불찰인데 -- 개츠비는 전화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고, 2주 전만 해도 나는 똑 같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던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을 즐겁게 했던 그것이 이제는 공기를 부패시키고 있었다.</p>
<p>“How do you feel, Miss Baedeker?”</p>	<p>“괜찮으십니까, 배데커 씨?”</p>
<p>The girl addressed was trying, unsuccessfully, to slump against my shoulder. At this inquiry she sat up and opened her eyes.</p>	<p>이름이 불린 여자는 내 어깨에 기대려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 질문에 자세를 고쳐 앉고는 눈을 떴다.</p>
<p>“Wha’ ?”</p>	<p>“무슨 말쓰~?”</p>
<p>A massive and lethargic woman, who had been urging Daisy to play golf with her at the local club to-morrow, spoke in Miss Baedeker’ s defence:</p>	<p>둔하고 덩치 큰 여자가, 내일 동네 클럽에서 골프를 함께 치자고 데이지를 조르다가, 배데커 씨의 편에 서서 말했다.</p>
<p>“Oh, she’ s all right now. When she’ s had five or six cocktails she always starts screaming like that. I tell her she ought to</p>	<p>“아, 이젠 괜찮아요. 앤 칵테일 대여섯 잔 하고 나면 늘 그렇게 소리질러요. 술잔에 손대지 말라고 제가 늘 타일러요.”</p>

leave it alone.”	
“I do leave it alone,” affirmed the accused hollowly.	“손 안대고 있다고,” 비난 받는 자가 빈말로 확인했다.
“We heard you yelling, so I said to Doc Civet here: ‘There’ s somebody that needs your help, Doc.’ ”	“소리지르는 걸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시벳 의사 선생께 말했는데: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라고.”
“She’ s much obliged, I’ m sure,” said another friend, without gratitude. “But you got her dress all wet when you stuck her head in the pool.”	“많이 고마워하지, 그럼,” 다른 친구가 말했는데, 고마운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풀장에 애 머리를 처박아서 옷이 다 젖게 했잖아.”
“Anything I hate is to get my head stuck in a pool,” mumbled Miss Baedeker. “They almost drowned me once over in New Jersey.”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건 풀장에 머리 처박는 거야,” 배데커 씨가 중얼거렸다. “뉴저지에서 한 번은 날 익사시킬 뻔 했더니깐요.”
“Then you ought to leave it alone,” countered Doctor Civet.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죠,” 시벳 의사 선생이 맞받아쳤다.
“Speak for yourself!” cried Miss Baedeker violently. “Your hand shakes. I wouldn’ t let you operate on me!”	“사돈 남 말!” 배데커 씨가 격렬하게 외쳤다, “손이나 떨면서. 선생님한테 수술 안 받아요!”
It was like that. Almost the last thing I remember was standing with Daisy and watching the moving-picture director and his Star. They were still under the white plum tree and their faces were touching except for a pale, thin ray of moonlight between. It occurred to me that he had been very slowly bending toward her all evening to attain this proximity, and even while I watched I saw him stoop one ultimate degree and kiss at her cheek.	그런 식이었다. 기억에 남는 거의 마지막 일은 데이지와 함께 서서 영화 감독과 그의 스타 여배우를 바라본 것이었다. 둘은 여전히 하얀 자두 나무 아래 있었는데 거의 맞닿은 둘의 얼굴 사이에는 창백하고 알팍한 한 줄기 달빛 밖에 없었다. 저녁 내내 아주 조금씩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 정도 근접성을 달성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보는 와중에 최종적 일 도(1°)를 더 기울여 마침내 그 볼에 입맞추었다.
“I like her,” said Daisy, “I think she’ s	“맘에 들어,” 데이지가 말했다, “예쁜 것

lovely.”	같아.”
<p>But the rest offended her -- and inarguably, because it wasn't a gesture but an emotion. She was appalled by West Egg, this unprecedented "place." that Broadway had begotten upon a Long Island fishing village -- appalled by its raw vigor that chafed under the old euphemisms and by the too obtrusive fate that herded its inhabitants along a short-cut from nothing to nothing. She saw something awful in the very simplicity she failed to understand.</p>	<p>그러나 나머지는 데이지의 마음을 거슬렀다 -- 그걸 어떻게 아냐고 따져 묻진 말기를, 그것은 몸짓이 아닌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데이지는 웨스트 에그에, 이 유례없는 "장소" 에, 브로드웨이가 롱 아일랜드의 어촌 위에 낳은 이곳에 기가 질렸고 -- 오랜 완곡어구들 아래에서 피부가 쏘리고 까이는 날것의 활력에 기가 질렸으며, 무에서 무로 지름길을 따라 그 거주자의 떼를 몰아가고 있는 특 불거진 운명에 기가 질렸다. 데이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단순함에서 뭔가 끔찍한 것을 보았다.</p>
<p>I sat on the front steps with them while they waited for their car. It was dark here in front; only the bright door sent ten square feet of light volleying out into the soft black morning. Sometimes a shadow moved against a dressing-room blind above, gave way to another shadow, an indefinite procession of shadows, who rouged and powdered in an invisible glass.</p>	<p>나는 현관 층계에 함께 앉아 그들의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곳 앞은 어두웠다; 밝은 문만이 아침의 검은 부드러움 속으로 1 평방미터 넓이의 빛을 던져내고 있었다.* 때때로 얼렁얼렁 그림자가 드레싱 룸의 블라인드에 비치다가, 다른 그림자에 먹히고, 그렇게 먹고 먹히는 그림자의 행렬은 끝이 없었으며, 그 그림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울 속에서 입술을 바르고 분을 발랐다.</p>
<p>* 원문에 가깝게 따라가 주어도 독자가 이해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겠죠.</p>	
<p>"Who is this Gatsby anyhow?" demanded Tom suddenly. "Some big bootlegger?"</p>	<p>"개츠비가 도대체 누구야?" 톰이 느닷없이 물었다. "거물급 밀주업자?"</p>
<p>"Where'd you hear that?" I inquired.</p>	<p>"그런 건 어디서 들었어?" 내가 물었다.</p>
<p>"I didn't hear it. I imagined it. A lot of these newly rich people are just big bootleggers, you know."</p>	<p>"들은 건 아니고. 상상한 거지. 요즘 신흥 부자들 중에 다름아닌 큰 밀매업자들이 많은 거, 알잖아."</p>

“Not Gatsby,” I said shortly.	“개츠비는 아냐,” 내가 금방 말했다.
He was silent for a moment. The pebbles of the drive crunched under his feet.	잠시 톰은 침묵했다. 마당 차길의 자갈들이 톰의 발아래서 빠드득 이를 갈았다.
“Well, he certainly must have strained himself to get this menagerie together.”	“암튼, 이런 야생동물 쇼를 벌이려면 그 친구 등골이 좀 뼈근했을 거야.”
A breeze stirred the gray haze of Daisy’s fur collar.	산들바람이 데이지의 모피 목덜미에 잿빛 털들의 아지랑이를 흔들었다.
“At least they’re more interesting than the people we know,” she said with an effort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보다는 흥미로운 사람들이에요,” 데이지가 애를 쓰며 말했다.
“You didn’t look so interested.”	“그렇게 흥이 나 보이진 않던데요, 당신.”
“Well, I was.”	“음, 재미있었어요.”
Tom laughed and turned to me.	톰이 소리 내어 웃고는 나를 보았다.
“Did you notice Daisy’s face when that girl asked her to put her under a cold shower?”	“그 여자가 찬물 샤워로 밀어 넣어달라 할 때 데이지 얼굴 봤어?”
Daisy began to sing with the music in a husky, rhythmic whisper, bringing out a meaning in each word that it had never had before and would never have again. When the melody rose, her voice broke up sweetly, following it, in a way contralto voices have, and each change tipped out a little of her warm human magic upon the air.	데이지가 음악에 맞춰 울동감 있는 허스키한 속삭임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면서, 가사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전에도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의미들을 불러내었다. 멜로디가 상승하면 데이지의 목소리도 따라 오르며 달콤하게 갈라졌는데, 그것은 마치 콘트라alto* 목소리 같았고, 변화부마다 따뜻한 인간적 마법이 그녀로부터 공기 중으로 흘러나왔다.
<b>*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b>	
“Lots of people come who haven’t been invited,” she said suddenly. “That girl hadn’t been invited. They simply force their way in and he’s too polite to object.”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고 와요,” 데이지가 갑자기 말했다. “그 여자도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너무 점잖아서 막지 않아요.”
“I’d like to know who he is and what he does,” insisted Tom. “And I think I’ll make a point of finding out.”	“누구고 뭘 하는 작자인지 알아내야겠어요,” 톰이 고집을 부렸다. “기어이 알아내도록 할 테야.”

<p>“I can tell you right now,” she answered.          “He owned some drug-stores, a lot of drug-stores. He built them up himself.”</p>	<p>“당장 말해줄 수 있어요,” 데이지가 응대했다. “약국이 좀 있구요, 아니 많이 있어요. 혼자 키웠어요.”</p>
<p>The dilatory limousine came rolling up the drive.</p>	<p>굽뚨 리무진이 마당 찾길을 굴러 올라왔다.</p>
<p>“Good night, Nick,” said Daisy.</p>	<p>“잘 자요, 오빠,” 데이지가 말했다.</p>
<p>Her glance left me and sought the lighted top of the steps, where THREE O’ CLOCK IN THE MORNING, a neat, sad little waltz of that year, was drifting out the open door. After all, in the very casualness of Gatsby’ s party there were romantic possibilities totally absent from her world. What was it up there in the song that seemed to be calling her back inside? What would happen now in the dim, incalculable hours? Perhaps some unbelievable guest would arrive, a person infinitely rare and to be marvelled at, some authentically radiant young girl who with one fresh glance at Gatsby, one moment of magical encounter, would blot out those five years of unwavering devotion</p>	<p>그녀의 눈길이 내게서 떠나 불 밝혀진 층계참을 향했고, 거기에는 그 해의 깔끔하고 슬픈 왈츠 풍의 노래 “아침 세 시” *가 열린 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국, 데이지의 세계에는 완전히 결여된 낭만적 가능성이 개츠비 파티의 바로 그 격식 없음 속에는 살아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 노래 속에 들어서 그녀를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던 걸까? 계산할 수 없는 흐릿한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어쩌면 믿기지 않을 손님, 한없이 귀하고 경이로운 한 사람, 한 순간의 마법적인 만남으로, 한 번의 첫 눈길로, 흔들림 없는 헌신의 지난 5년을 말끔히 지워버릴 진정으로 밝게 빛나는 젊은 여인이 당도할지도.</p>
<p>*들어보고 싶다면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PCQaZ0URnLA">http://www.youtube.com/watch?v=PCQaZ0URnLA</a> 등 여러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귀에 익을 거예요.</p>	

I stayed late that night, Gatsby asked me to wait until he was free, and I lingered in the garden until the inevitable swimming party had run up, chilled and exalted, from the black beach, until the lights were extinguished in the guest-rooms overhead. When he came down the steps at last the tanned skin was drawn unusually tight on his face, and his eyes were bright and tired.

나는 그 밤 늦게까지 남았는데, 개츠비가 자기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청했었고, 정원에서 빈둥거리다 보니, 아니나다르랴 수영 나갔던 패거리가 시린 몸으로 신이 나서 이미 올라왔고, 머리 위 손님방들의 불들이 소등되었다. 개츠비가 마침내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 피부는 유난히 팽팽하고 피곤한 두 눈은 빛이 났다.

<p>I stayed late that night, Gatsby asked me to wait until he was free, and I lingered in the garden until the inevitable swimming party had run up, chilled and exalted, from the black beach, until the lights were extinguished in the guest-rooms overhead. When he came down the steps at last the tanned skin was drawn unusually tight on his face, and his eyes were bright and tired.</p>	<p>나는 그 밤 늦게까지 남았는데, 개츠비가 자기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청했었고, 정원에서 빈둥거리다 보니, 아니나다르랴 수영 나갔던 패거리가 시린 몸으로 신이 나서 이미 올라왔고, 머리 위 손님방들의 불들이 소등되었다. 개츠비가 마침내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 피부는 유난히 뻣뻣하고 밝은 두 눈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p>
<p>“She didn’ t like it,” he said immediately.</p>	<p>“데이지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개츠비가 대뜸 말했다.</p>
<p>“Of course she did.”</p>	<p>“좋아했구말구요.”</p>
<p>“She didn’ t like it,” he insisted. “She didn’ t have a good time.”</p>	<p>“좋아하지 않았다니가요,” 그가 우겼다.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p>
<p>He was silent, and I guessed at his unutterable depression.</p>	<p>개츠비가 침묵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우울함이 짐작되었다.</p>

<p>“I feel far away from her,” he said. “It’s hard to make her understand.”</p>	<p>“데이지가 멀게만 느껴져요,” 개츠비가 말했다, “데이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p>
<p>“You mean about the dance?”</p>	<p>“그 춤 말하나요?”</p>
<p>“The dance?” He dismissed all the dances he had given with a snap of his fingers. “Old sport, the dance is unimportant.”</p>	<p>“그 춤?” 그가 손가락을 딱 튕기며* 그 모든 춤들을 일축해버렸다. “형씨, 그 춤은 중요하지 않아요.”</p>
<p>*관련은 크게 없겠으나, 기억나는 것이 제 1장에서 데이지가 촛불들을 손가락으로 꺾습니다(She snapped them out with her fingers.). 그리고 finger라는 단어가 제일 자주 나오는 곳은 제 7장입니다.</p>	
<p>He wanted nothing less of Daisy than that she should go to Tom and say: “I never loved you.”</p>	<p>그가 바라는 건 덜도 말고 딱 데이지가 톰에게로 가서 “한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p>
<p>After she had obliterated four years with that sentence they could decide upon the more practical measures to be taken. One of them was that, after she was free, they were to go back to Louisville and be married from her house -- just as if it were five years ago.</p>	<p>데이지가 그 한 문장의 말로 4년의 세월을 말끔히 지워버린 후에야 둘은 좀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결정할 수 있을 터였다. 그 중 하나로서 가능한 것이, 데이지가 자유를 얻은 뒤, 둘이 루이스빌에 돌아가 데이지의 집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 마치 5년 전으로 되돌아간 마냥.</p>
<p>“And she doesn’t understand,” he said. “She used to be able to understand. We’d sit for hours ----”</p>	<p>“그리고 데이지 이해 못해요,” 그가 말했다. “옛날엔 이해했었는데. 그 옛날 우리 몇 시간이고 앉아서 -- --.”</p>
<p>He broke off and began to walk up and down a desolate path of fruit rinds and discarded favors and crushed flowers.</p>	<p>그는 문득 말을 끊고는 과일 껍질과 버려진 선물들과 짓뭉개진 꽃들이 널브러진 황량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걷기 시작했다.</p>
<p>“I wouldn’t ask too much of her,” I ventured. “You can’t repeat the past.”</p>	<p>“나라면 너무 많은 걸 데이지에게 바라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감히 엄두를 내어 말했다. “과거를 되풀이할 순 없어요.”</p>
<p>“Can’t repeat the past?” he cried incredulously. “Why of course you can!”</p>	<p>“과걸 되풀이할 수 없다고요?” 그가 못 믿겠다는 듯 소리쳤다. “왜, 물론, 할 수</p>

<p>He looked around him wildly, as if the past were lurking here in the shadow of his house, just out of reach of his hand.</p>	<p>있죠!” 그가 주변을 미친 듯 둘러보았는데, 마치 과거가 여기 자기 집 그림자 속에 웅크리며, 손 뻗으면 거의 닿을 만한 곳에, 숨어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p>
<p>“I’ m going to fix everything just the way it was before,” he said, nodding determinedly. “She’ ll see.”</p>	<p>“모든 것을 이전 그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개츠비가 말하며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지도 보게 될 겁니다.”</p>
<p>He talked a lot about the past, and I gathered that he wanted to recover something, some idea of himself perhaps, that had gone into loving Daisy. His life had been confused and disordered since then, but if he could once return to a certain starting place and go over it all slowly, he could find out what that thing was. . . .</p>	<p>그는 과거에 대해 많은 말을 했고, 끼워 맞춰 보건대, 데이지를 사랑하는 데 들어 갔던 그 뭔가를, 어쩌면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일지도 모르는 뭔가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혼란과 무질서로 빠져들었지만, 어떤 출발점으로 일단 돌아가서 모두 다 찬찬히 되짚어볼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찾아낼 수 있고...</p>
<p>. . . One autumn night, five years before, they had been walking down the street when the leaves were falling, and they came to a place where there were no trees and the sidewalk was white with moonlight. They stopped here and turned toward each other. Now it was a cool night with that mysterious excitement in it which comes at the two changes of the year. The quiet lights in the houses were humming out into the darkness and there was a stir and bustle among the stars. Out of the corner of his eye Gatsby saw that the blocks of the sidewalks really formed a ladder and mounted to a secret place</p>	<p>... 어느 가을 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들은 우수수 떨어지는데 둘은 길을 따라 걸어내려 갔더랬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고 인도는 달빛으로 마냥 하얗다. 둘은 여기서 멈춰 서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밤은 선선하였고, 1년 중 두 변화의 길목에 찾아오는 그 신비로운 흥분이 그 밤에 깃들어 있었다*. 집집마다 밝힌 조용한 불빛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뚝뚝 떠내려 나왔고, 별들 사이에는 술렁임과 북적임이 일었다. 개츠비는 눈 한 켠으로 보도블럭들이 사다리를 이루며 나무들 저 위 비밀스런 곳으로 타</p>

above the trees -- he could climb to it, if he climbed alone, and once there he could suck on the pap of life, gulp down the incomparable milk of wonder.

고 올라가는 것을 실제 보았다 -- 타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혼자 올라간다면, 일단 거기에 가면 삶의 젓꼭지를 빨며 비할 데 없는 경이로움의 젖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을 텐데.

\* The Great Gatsby and the American Dream By Sandra Kochan

p. 7.

### 3.2.1 Time

*The Great Gatsby* is a novel deeply concerned with time. It contains repeated allusions to hours, days and seasons suggestive of change. At the beginning of the novel, Nick has "that familiar conviction that life was beginning over again with summer." (p. 10) In Chapter V he speaks of the end of the afternoon, "the hour of profound human change," (p. 102) in Chapter VI of "a cool night with that mysterious excitement in it which comes at the two changes of the year." (p. 117-118) Jordan says in Chapter VII: "Life starts all over again when it gets crisp in the fall," [...]" (p. 124) And Nick meditates on his age: "I was thirty. Before me stretched the portentous, menacing road of a new decade." (p. 142)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려요~^^)

His heart beat faster and faster as Daisy's white face came up to his own. He knew that when he kissed this girl, and forever wed his unutterable visions to her perishable breath, his mind would never romp again like the mind of God. So he waited, listening for a moment longer to the tuning-fork that had been struck upon a star. Then he kissed her. At his lips' touch she blossomed for him like a flower and the incarnation\* was complete.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자기 얼굴 위로 올라오자 개츠비의 심장은 빠르게 더 빠르게 뛰었다. 이 여자에게 입맞출 때에, 그의 표현할 길 없는 꿈들을 그녀의 사그라질 숨결에 영원히 혼인시킬 때에, 그의 마음은 신의 마음과 같이 다시는 출썩거리지 않게 되리. 그래서 그는, 별로 튕긴 소리굽쇠에 귀 기울이며, 한 숨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입맞추었다. 그의 입술의 감촉에 데이지는 그를 위해 꽃처럼 피어났고, 제이 개츠비의 육화는 완성되었다.

\*앞서 말한 "혼인," "신" 과 연결된 개념.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incarnation)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송무 교수님이 "incarnation" 을 "꿈의 육화" 라고 번역하신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감히 표현을 훔쳐오지는 못하겠습니다). 즉, 제이 개츠비의 진정한 탄

생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꿈꾸어 오던 제이 개츠비의 삶이 그가 인생에서 꿈꾸는 모든 것을 상징한 데이지와 결합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Through all he said, even through his appalling sentimentality, I was reminded of something □ an elusive rhythm, a fragment of lost words, that I had heard somewhere a long time ago. For a moment a phrase tried to take shape in my mouth and my lips parted like a dumb man's, as though there was more struggling upon them than a wisp of startled air. But they made no sound, and what I had almost remembered was uncommunicable forever.

개츠비가 말한 모든 것에, 심지어는 그의 소스라칠 감상주의에, 나는 뭔가 떠오르렀다 -- 오래 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잡힐듯 잡히지 않는 리듬, 잃어버린 말의 편린. 잠시 어떤 구절이 내 입 안에서 모양을 잡으려 애쓰고, 내 두 입술은 병어리의 입술처럼 벌어졌는데, 마치 놀란 공기 가닥보다 두 입술에 더 처절히 버둥거릴 게 있는 꼴이었다. 하지만, 입술은 결국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가 거의 기억해낼 뻔 했던 뭔가는 영원히 소통되지 못했다.

## 위대한 개츠비 제 6장

블로그 Transomerset <http://blog.daum.net/transom>

저자 여리

발행일 2011.10.07 10:00:53

 블로그